

내일 금융노조 파업...지역 은행권 '긴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광주은행·농협 등 대거 참여

일부 창구 업무 차질 우려...은행들 대책 마련 고심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금융노조 총 파업에 광주은행과 농협 등 광주·전남 지역 주요 금융기관 노조원들도 대거 참여하기로 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총파업이 진행되는 하루 동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중은행 영업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고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역 주요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 광주은행의 경우

1500여명의 직원 중 노조원 95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노조는 주요 병원 지정 창구 등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합원을 이날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광주·전남본부 소속 금융노조 조합원들도 파업에 참여한다. 농협의 경우 광주는 300여명, 전남은 800여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전남은 출장소 등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200여명은 파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조합원들도 23일 총파업에 대부분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 금융계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은행업무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창구 현장의 혼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만큼 은행별로 수 백명씩 한꺼번에 파업에 참여할 경우 창구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파업참여로 영업점에 근무하는 인원이 줄어들면 대출 연장이나 방카슈랑스 가입 등 일부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들은 파업참여 규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대출 신청 등 업무는 미리 처리해야 하며 특히 신규대출이나 연장, 방카슈랑스 가입 등의 업무는 파업 당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23일 총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저성과자 해고·관치금융 반대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권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한 관치로 금융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5.99 (+10.28)
- ↓ 금리 (국고채 3년) 1.33% (-0.01)
- ↑ 코스닥 678.28 (+3.77)
- ↓ 환율 (USD) 1120.10원 (-0.50)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예·적금 출시

예금 금리 1.75%·적금 1.9%...은행권 최고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 전용상품인 '쓸쓸한 마이클 예금·적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기간 중 한도소진 시 판매 중단하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금리는 예금 1.75%, 적금 1.90%를 적용한다. 은행권 금리비교 사이트 비교시 최고 수준의 금리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신규 가입 시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는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스마트뱅킹으로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앱인 '마이클뱅크'를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한 본인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성기운 광주은행 미래금융부 부장은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로 비대면 채널의 장점을 살려 불편함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더 좋아진 취업문

대기업 절반 "신규 줄이겠다"

대기업 2곳 중 1곳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최근 의뢰해 실시한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210개사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8.6%는 올해 신입과 경력자를 포함해 자사의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응답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0.0%였고, 작년보다 늘일 것이라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한다는 응답은 8.2%포인트 줄어든 반면, 작년보다 감소한다는 응답은 12.8%포인트 늘어났다.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기업들의 52.0%는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를 이유로 꼽았고, '회사의 내부 상황이 어려워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32.4%), '정년연장으로 퇴직자가 줄어 T/0가 부족해서'(9.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이유로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인재 확보 차원에서'라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고,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이 좋거나 좋아질 전망이어서'가 29.2%로 뒤를 이었다.

올해 대졸 신입 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45.2%), '작년보다 감소'(44.3%), '작년보다 증가'(10.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작년보다 증가한다'는 응답은 8.7%포인트 줄었고, '작년보다 감소한다'는 응답은 6.1%포인트 늘었다.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했다'(62.9%), '도입할 계획이 있다'(21.0%), '도입 계획이 없다'(16.1%) 순으로 응답했다. /연합뉴스



더 편리해진 '갤럭시 탭'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탭 'A with S 펜'으로 GIF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더욱 강력해진 'S펜'과 대화면이 탑재된 태블릿 '2016년형 갤럭시 탭 A with S펜'을 LTE와 와이파이 버전 2종으로 21일 국내에 출시했다. <삼성전자 제공>

30대 공기업 여성임원 全無

7개 공기업은 부장급도 전멸...정부 30% 공약 헛구호

정부가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국내 주요 30개 공기업에는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시장형·준시장형 30개 공기업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여성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0개 공기업의 임원 수는 139명이다. 2014년까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에 각각 1명씩 여성임원이 있었지만, 이들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국내 주요 30개 공기업에는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초 11.5%에서 2014년 12.0%, 2015년 12.4%로 높아졌고 올해는 12.9%에 달했다. 그러나 임원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중이 급감해 전형적인 '유리천장'이 막혀 있는 구조다.

주요 공기업의 부장급 인력 비중도 1.9%에 불과하다. 남성 7046명, 여성 139명이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

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7개 공기업은 부장급조차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관리자인 차장급 인력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심했다. 30개 공기업의 차장·과장급 남성 직원은 4만3293명, 여성 직원은 4047명으로 여성 비중이 8.5%에 불과했다. 사원급에서는 남성 3만8천797명, 여성 9421명으로 여성 비중이 19.5%였다.

여성 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관광공사였다. 관광공사는 전체 602명의 임직원 가운데 240명이 여성으로 39.9%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9.1%로 2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9.2%로 3위였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 27.7%, 한국감정원 26.8% 순이었다. /연합뉴스

귀뚜라미보일러 지진·가스 노출에도 안전

탐지기 장착 재난시 자체 가동 중단...버튼만 누르면 재가동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귀뚜라미보일러가 저질로 가동 중단된 것과 관련 귀뚜라미보일러는 지진감지기가 작동한 것이며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가동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최근 지진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유독 귀뚜라미보일러의 수리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 추후 연휴를 포함해 지난 일주일간 해당 지역에서 보일러 중단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것만 35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고장이 아니라 귀뚜라미보일러가 지진을 감지하고 안전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는 귀뚜라미측의 설명이다. 귀뚜라미는 지진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0년 전부터 지진감지기와 가스누출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사진> 귀뚜라미보일러는 지진 및 공사에 의한 진동이 감지되면 즉시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켜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막고 있다. 귀뚜라미 측은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많은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스보일러의 안전 문제가 크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저질로 중단된 보일러는 재가동 버튼만 누르면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귀뚜라미측은 "2귀뚜라미의 방진 장치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며 "유용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